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②	03. ③	04. ①	05. ①	06. ④	07. ①	08. ①	09. ④	10. ③
11. ④	12. ③	13. ①	14. ⑤	15. ⑤	16. ③	17. ②	18. ④	19. ②	20. ⑤

1. 스토아학파에서 추구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대화의 스승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apatheia)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의연함을 지닐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극적 쾌락주의 사상가인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삶의 자세이다.

③ 그리스도교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이다.

④ 스토아학파의 사상가들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⑤ 스토아학파의 사상가들은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과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2. 맹자와 순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선한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곧 자포자기이다(ㄱ). 순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예치(禮治)를 통해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맹자에 따르면 인의는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덕성이다.

ㄹ. 순자에 따르면 예는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성왕(聖王)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3.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을은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절대자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을 정해 주거나 삶의 방향을 알려 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최고선인 행복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기와 같은 감정과 살인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용의 상태를 말할 수 없다.

④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다움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실현된다.

4. 불교 사상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불교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는 글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라는 오온(五蘊)의 결합체로 본다. 그런데 오온은 늘 변화하므로 인간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인간 이외의 만물 역시 인연에 의해 생멸 변화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ㄱ). 그리고 현생의 업(業)이 원인이 되어 다음 생이 이어진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無明)은 고통의 원인인 무지를 가리킨다. 이러한 무명은 실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거나 벗어나야 할 것이다.
ㄹ. 불교의 인연 사상에 따르면 오온으로 구성된 인간의 자아는 무상(無常)하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아는 늘 변화한다.

5. 조건부 의무론의 기본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조건부 의무'를 제시한 로스의 주장이다. 로스는 칸트 윤리 사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언 명령보다 느슨한 원칙인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덕 원칙도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상황에 적합한 도덕적 의무를 직관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③ 로스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의무로 채택된 조건부 의무가 실제적 의무이다.
④ 로스에 따르면 모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 원리는 없다.
⑤ 로스에 따르면 조건부 의무들 간에도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6. 아우구스티누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 또는 자연이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그러한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②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실현된다.
③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없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스피노자 중에서 신의 은총에 의해 정념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뿐이다.

7. 신자유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이고, (나)는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재화의 균등 분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민주 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통한 재화의 균등 분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의회 또는 정당 활동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③ 신자유주의는 사유 재산제를 지지하며,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④ 신자유주의는 공공의 이익 추구보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우선시한다.

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한다.

8.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이(理)는 하나이지만 세상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理一分殊(이일분수)]고 보았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천리[心卽理(심즉리)]이며, 마음 밖에는 이가 없다[心外無理(심외무리)]고 보았다. 주희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이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희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理)로 이루어져 있다.

③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 밖에는 이치뿐만 아니라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心外無物(심외무물)].

④ 왕수인은 선지후행이 아니라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⑤ 주희와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선천적인 것이다.

9. 흄과 로크의 정치적 의무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로크이다. 흄은 혜택론의 입장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는데 비해, 로크는 시민들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ㄴ). 흄과 로크는 모두 국민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국가의 핵심 임무로 보았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흄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즉 국가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이 정치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로크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정치적 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보

았다.

10. 칸트와 밀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밀이다. 칸트와 밀은 모두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 원리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ㄴ). 또한 그들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통해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즉, 칸트는 정언 명령을, 밀은 공리의 원리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칸트에 따르면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이 아니라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법칙에 따르는 명령이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ㄹ. 도덕 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11. 이황과 정약용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과 달리 사덕(四德)을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치가 아니라 사단(四端)을 일상에서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으로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황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사덕을 마음에 부여되어 있는 이치로 본다.

② 이황은 사단을 본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았다. 사단을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③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를 성(性)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덕은 타고난 성이 아니다.

⑤ 이황은 사단을 선천적인 선한 감정으로 보았으며, 정약용은 사단을 선천적인 선한 마음으로 보았다.

12. 이이가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는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無形無爲(무형무위)]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有形有爲(유형유위)]고 보고,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이는 이황에게 칠정이 사단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ㄴ),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所以(소이)]일 뿐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ㄹ)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이이에 따르면 이는 스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이황은 이가 스스로 작용하여 만물을 낳는다고 보았다.

ㄷ. 이이에 따르면 이는 발할 수 없고 기만이 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황은 이와 기 모두가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아퀴나스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인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파악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신에 의해 정립된 영원법에 근거한다. 이때의 자연법은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이성의 명령으로,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퀴나스는 영원법을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 근거로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아퀴나스는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를 자연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영원법과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고 보았다.

14. 혜능과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대표적인 선종 사상가인 혜능이고, 을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지눌이다. 혜능이 돈오(頓悟)를 강조한 데 비해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지눌은 참선 수행과 함께 교학(敎學), 즉 경전 공부에도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ㄴ). 그리고 돈오 이후에도 꾸준히 습기(習氣), 즉 몸에 밴 나쁜 습관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ㄷ). 한편 혜능과 지눌은 모두 돈오, 즉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혜능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을 강조하였다. 즉, 경전에 얽매이지 말고 본성을 직관하여 깨달음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15. 듀이의 진리관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인간의 생각, 지식, 이론 등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자 사회를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진선미(眞善美)'이고, (B)는 '윤리(倫理)'이다. 그러므로 세로 낱말 (A)는 '진리(眞理)'이다. 듀이에 따르면 진리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삶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듀이는 진리의 획득과 관련해서 직관적 판단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였다.

② 듀이에 따르면 시공을 초월한 고정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도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다.
③ 듀이에 따르면 진리는 본래적 선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 또는 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유용한 도구로서 중시되는 것이다.
④ 듀이에 따르면 오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16.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피스트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피스트들이 상대주의적 윤리설을 제시하고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 데 비해 소크라테스는 보편주의적 윤리설을 제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정신의 탁월성, 즉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피스트는 용기나 지혜와 같은 덕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본다.
② 소피스트는 감각적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악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무지와 함께 의지의 나약함도 중시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⑤ 소크라테스는 선이 객관적인 것이며,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7.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자유주의이고,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보며, 국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이 개인적 선보다 우선하며,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는 국가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
③ 공동체주의는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④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 수행을 좋은 삶의 조건으로 보고 중시한다.
⑤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데 비해,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한다.

18. 배려 윤리와 덕 윤리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배려 윤리 사상가인 나딩스이고, 을은 덕 윤리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다. 나딩스는 길리건이 주장한 배려 윤리를 남녀 모두에게 요청되는 보편적인 윤리로 확장하려고 하였다. 매킨타이어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강조하는 근대 윤리를 비판하고 사람의 성품과 덕성을 중시하는 덕 윤리를 제시하였다. 나딩스는 정의 윤리

와 함께 배려 윤리가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ㄱ). 매킨타이어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ㄴ). 그리고 나딩스와 매킨타이어는 모두 도덕적인 상황의 맥락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나딩스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롤스와 왈처의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롤스이고, 을은 왈처이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나)의 A에는 롤스는 긍정, 왈처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B에는 롤스가, C에는 왈처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③ 롤스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④ 왈처는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하며,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 왈처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에 적합한 상이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20. 도교 사상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도교 사상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는 글이다. 도교에서는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양생(養生)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양생을 위해 정신 수련과 의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또한 도교에서는 몸 안의 기(氣)를 단련하면 건강과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ㄷ), 도에 이르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도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함께 수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몸이 상하면 기가 흐트러지게 되고, 정신이 튼튼하지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